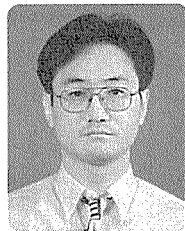


COMDEX Fall 2001 참관기



본회 전자상거래팀 과장 홍장혁

참관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참관일시 : 2001. 11. 12 ~ 15

23 회째를 맞는 컴덱스는 첨단 정보통신 분야의 최대규모 행사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작년의 경우 모바일, 전자상거래, 네트워킹 등의 분야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참가업체에 대하여 관람객수가 20만을 넘었다고 하니 그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올해의 경우 9.11 테러 참사와 전쟁 그리고 또 다른 테러에 대한 우려로 개막전부터 보안에 관련된 주의 메일 내용은 참관 자체를 부담스럽게 했다. 또한 현지에도 도착하여 하루를 보내고 컴덱스 첫날 접한 어메리칸 에어라인의 참사소식은 우려를 사실상 증명이라도 하듯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의 전시장 입구에는 보안 검색으로 인한 지체로 많은 인파가 순서를 기다리며 줄지어 있었다. 보안 검색 작업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의 전시장은 크게 Central Hall과 North Hall로 나누어져 있으며 Biometropolis,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Linux Hatchery, IBM 파트너, Bluetooth, Palm solution, USB, 국가관(한국, 캐나

다, 대만)등의 Pavilion과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솔루션, Networking, e-Mobility, IT Service 등의 Technical Zone, 일반 쇼 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장의 중앙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본 쇼 케이스 외에도 전시장 곳곳에 윈도우XP 휘장을 전시하여 차세대 OS로서의 면모를 알렸으며, 파트너 부스를 통하여 Corel Corp., Ipswitch, AMD 등 윈도우XP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업체들을 참가시켰다. 또한 후지쯔 등과 타블릿 PC를 소개했으며 이는 작년 Keynote에서 빌게이츠가 타블릿 PC에 대한 소개를 한 것을 상기시켜볼 때 향후 PC 플랫폼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반면 Linux는 그 동안 거세게 불던 바람에 비하여 Linux



Hachery Pavilion를 통하여 극소수의 업체가 참가했을 뿐이다.

NTT도코모, 소니, 도시바 등은 차세대 통신 제품으로 CDMA를 지원하는 제품을 선보였으며 모바일 폰과 PDA가 일체화되는 모습을 가시화하였다. 특히 NTT도코모는 IMT2000을 처음으로 상용화시켰다며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핸드헬드 PC나 PDA의 경계가 모호지는 경향도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핸드스프링사의 PDA제품인 트리오(Treo)는 참관 기자들에게 가장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인 Cisco systems는 Aironet 350의 무선 LAN 솔루션을 소개했다. 전시장내 무대를 통하여 오피스 및 비즈니스 생활과 연계된 연극을 시연함으로써 많은 시선을 집중시켰다. 세계적 CPU 제조사인 인텔은 PC 마더보드(Hannacroix)를 소개 했는데, 이는 무선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하여 802.11b환경을 제공하며 USB 2.0과 애플에서 지원되는 Firewire(IEEE 1394a)를 동시에 지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품목 중 하나가 LCD, PDP등 디스플레이 부분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 DVD플레이어, HDTV 기능이 합쳐진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국, 대만, 캐나다, 영국 등 국가별 연합으로 국가관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전자산업진흥회가 주관이 되어 디스플레이, PDA, 메모리 스틱 등 여러 품목에 걸쳐 다양하게 출품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관람자가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만의 경우는 PC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가 많이 눈에 띄었다.

흥미를 끄는 부스로는 National Semiconductor가 아마존 정글의 고대 유적지 모습을 꾸며 놓고 참관자를 참여 시키는 공연을 하였으며, Bluetooth Pavilion은 바이킹 복장을 한 '블루투스 킹'이 돌아다니며 참관자를 유치하고 사진의 모델이 되는 등 흥미를 끌었다. Sony는 로봇 강아지인 아이보

(ERS-220)를 선보여 이를 보려는 참관자가 많이 모였다. 아이보는 75단어를 기억하며 무선랜을 이용하여 PC에서 아이보로 무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 머리부분에 내장된 카메라로 스트리밍 비디오를 PC로 보낼 수 있고, 오디오 파일을 아이보에 보내면 자신의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준다. 또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어 외출시 집을 감시할 수 있다고도 한다.

Jestertek라는 회사는 제스트포인트(Jestpoint)라는 키오스크를 선보였는데 참관자가 직접 골키퍼가 되어 화면으로 날아오는 축구공을 막는 게임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전시회의 규모는 작년에 비하여 30% 정도 작아진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참관자 역시 첫날 이후에 점차 줄어드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전시장을 돌면서 받았던 느낌과 마찬가지로 일반 매체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일반적인 평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과 카탈로그 시스템이 관심사였으나 전자카탈로그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전자 상거래 솔루션과 관련하여서도 Ariba나 CommerceOne 같은 업체가 Pavilion이나 파트너 부스를 통하여 작은 비중으로 소개되었을 뿐 커다란 이슈가 없어서 아쉬웠다.

